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 (02)721-9861

metroseoul.co.kr

metro®

제6037호 2026년 11월 18일 수요일



세계 사로잡은
K-푸드
내수 부진에도 선방
L1

Life

화면 밖 나온
이커머스
뷰티 매장·팝업 경쟁
L2





2026 뉴테크놀로지 포럼

AX시대

주요 업종별 AI 활용법은?

2026년 11월 18일(수) 오후2시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 metro · metro경제

AI 도입 넘어 실전 활용까지… 산업별 AX 해법 찾는다

기업 경쟁력, AI 전환에 달려
업종별 특성 반영한 전략 필요
산업 현장 중심 활용 사례 공유
AI 도입 성과·성공 전략 등 논의

기업의 생존은 이제 인공지능 전환(AX)에 달렸다. 일부 선도 기업의 기술 실험에 머물렀던 인공지능(AI)이 최근 업종을 가리지 않고 산업 현장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AI를 실제 업무와 사업 구조에 녹여내는 역량이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고 있다.

제조업은 생산 공정의 효율화가, 금융업은 리스크 관리와 고객 서비스 개선이 주요 과제다. 업종마다 보유한 데이터와 업무 구조가 다른 만큼 AI를 도입하는 방식도 달라야 한다. 특히 산업별 특성과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전략이 필요하다.

이에, 〈메트로신문〉과 〈메트로경제신문〉은 18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중구 을지로 페럼타워 3층 페럼홀에서 '2026 뉴테크놀로지 포럼'을 통해 최신 트렌드를 공유한다. 올해 포럼의 주제도 기업들의 AX 동향을 살펴보는 'AX시대, 주요 업종별 AI 활용법은?'이다. 산업별 실제 활용 사례를 중심으로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AX 전략을 공유하는 자리다.

포럼은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과 이우용 한국SW·AX총연합회장의 축사, 이장규 메트로경제 대표이사의 개회사로 문을 연다. 이어 이경전 경희대 교수(한국AI서비스학회장)가 '업종별 AI/로봇 활용 방안과 전망'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맡아 산업별 AI 적용 현황과 향후 방향을 짚는다.

김지섭 뤼튼테크놀로지스 이사는 'AI 전환의 허와 실'을 통해 기업 AX 과정에서 마주하는 기대와 현실의 간극을 조명한다. 한영섭 LG유플러스 AI R&D랩장은 'AI가 이끄는 기술/산업의 변화, 그리고 새로운 기회(AX)'를 주제로 산업 지형 변화 속 새로운 기회를 제시한다.

이어 박기철 KT IT부문 서비스플랫폼담당 상무가 '산업현장 AI적용사례와 변화 트랜드'를 통해 기업의 결정적인 성공 사례를 살펴본다. 현창호 SK텔레콤 엔터프라이즈 프리세일즈팀장은 '엔터프라이즈 비즈니스에서의 AX의 역할과 의의'를 주제로 AI 도입이 곧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를 짚고, 데이터·프로세스·조직 전반의 재설계 방안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에서는 통신 3사를 비롯해 AI 서비스 기업과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업종별 AI 활용 사례와 시행착오가 종합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까지 AX 여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해법도 폭넓게 논의될 예정이다. /조민선 기자

msjo@metroseoul.co.kr

2026 뉴테크놀로지 포럼 프로그램

시간	구분	프로그램
13:00~14:00	참가접수 및 등록 ※VIP티타임: 13:30~14:00	
14:00~14:20	축 사	**이우용** 한국SW·ICT 총연합회 회장
	개회사	**이장규** 메트로경제 대표이사
14:20~14:50	기조강연	**이경전** 경희대 교수·한국AI서비스학회장 :업종별 AI / 로봇 활용 방안과 전망
14:50~15:20	강연	**김지섭** 뤼튼테크놀로지스 이사 :AI 전환의 허와 실
15:20~15:50		**한영섭** LG유플러스 AI R&D랩장 :AI가 이끄는 기술/산업의 변화, 그리고 새로운 기회(AX)
15:50~16:20		**박기철** KT IT부문 서비스플랫폼담당 상무 :산업현장 AI적용사례와 변화 트렌드
16:20~16:50		**현창호** SK텔레콤 엔터프라이즈 프리세일즈팀장(선임팀장) :엔터프라이즈 비즈니스에서의 AX의 역할과 의의

이 경 전
경희대 교수·한국AI서비스학회장



이경전 경희대학교 교수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경영과학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뒤 KAIST 경영대학 조교수와 한국지능정보시스템학회장 등을 역임하며 AI 연구와 산업 적용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왔다. 미국인공지능학회(AAAI)의 혁신적 인공지능 응용상을 네 차례 수상했으며, 2018년에는 전자정부 공로로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현재 한국AI서비스학회 초대 공동회장으로, 국내 AI 기술의 산업적 활용과 서비스 혁신을 이끌고 있다. 이 교수는 특히 AI 에이전트와 플랫폼 경제, AI 기반 서비스의 사업화에 주목하며, 인간과 AI의 협력을 통한 새로운 경제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김 지 섭
뤼튼테크놀로지스 이사



김지섭 뤼튼테크놀로지스 이사 겸 기업개발실장은 연세대학교에서 경영학과 응용통계학을 공부했고, 베인앤드컴퍼니와 아마존웹서비스(AWS)를 거쳐 뤼튼테크놀로지스에 합류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AI 전환의 허와 실'을 주제로 발표한다. 기업의 인공지능 전환(AX) 과정을 ▲명확한 ROI 세팅 ▲AX 가부 판단 ▲보톰 업(Bottom-up)의 함정 ▲데이터 거버넌스 ▲사용자 경험(UX) 등 다섯 가지 사례로 나눠 짚는다.

사내 회의록 앱, 사용자 문의와 환불을 처리하는 CS 에이전트, 재무 데이터 에이전트 등 뤼튼이 직접 만들어 쓰는 사례도 함께 소개한다.

한 영 섭
LG유플러스 AI R&D랩장



한영섭 LG유플러스 AI R&D랩장(담당)은 자연어처리 분야에 뿌리를 둔 AI 기술 전문가다. 미국 타우슨대에서 컴퓨터과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병역특례 기간 검색엔진 코어 개발을 맡은 경험이 있다. 2017년 LG유플러스에 입사해 AI 스피커와 챗봇 엔진 개발에 참여했다. IPTV AI 검색 서비스 출시를 이끌었으며, 언어기술팀장과 AI기술담당을 거쳐 현재 회사의 AI 연구개발 조직을 총괄하고 있다.

엑사원 기반 통신 특화 거대언어모델(LLM) '익시젠(ixi-GEN)'을 선보였고, AI 통화 에이전트 앱 '익시오(ixi-O)'의 온디바이스 음성인식(STT)과 딥보이스 탐지 등 핵심 엔진 개발에도 기여했다.

박 기 철
KT IT부문 서비스플랫폼담당 상무



박기철 KT IT부문 서비스플랫폼담당 상무는 AI응용서비스분야 전문가다. 성균관대 산업공학과에서 학사와 석사(MIS) 학위를 받았고, KAIST CAIO 과정(3기)을 수료했다. KT에서 MVNO 사업자를 위한 MVNE 플랫폼 상용화와 KT-삼성 스마트폰 '옴니아' 앱 분야 상용화를 총괄했다.

이후 AI 스피커 '기가지니' 응용서비스플랫폼 개발·운영 PM을 맡았고, KT 사내 AI 고객센터(AICC) 구축과 신한·우리·농협 등 금융권 솔루션 상용화를 수행했다.

현재는 교육·에너지·모빌리티·IoT·AICC 등 5대 사업 중심의 서비스 플랫폼 개발·운영을 총괄하고 있다.

현 창 호
SKT 엔터프라이즈 프리세일즈 팀장



현창호 SK텔레콤 엔터프라이즈 프리세일즈팀장(선임팀장)은 ICT 분야 25년 경력의 AI·클라우드 전문가다. 서울대 기계항공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일리노이대(UIUC)에서 컴퓨터과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졸업 이후 한국IBM에서 IT 컨설팅과 기업 영업을 맡았으며, SK텔레콤에서 기업용 AI·데이터 솔루션을 기획해왔다.

특히 스마트팩토리 이미지 분석용 비전 알고리즘을 개발해 다양한 산업 현장에 적용했으며, 현재는 거대언어모델(LLM) 기반의 기업 AX 서비스를 이끌고 있다. 이번 강연에서는 AI 도입이 곧 생산성 향상은 아니라는 점을 짚는다.

메트로 한줄뉴스



▲추춘제 대비하는 K리그…영국 동절기 운영 현황 살펴
▲감독·코치 경험한 이승엽, 거취 어떻게 되나… "복귀? 급하지 않다" /사진 뉴시스
▲FA 오태곤, SSG와 동행 이어간다…3년 총액 11억원 계약
▲태극전사, 카타르와 올해 마지막 A매치…손흥민 60호골 재도전
▲LPGA 투어 디 안니카 준우승 최혜진, 세계랭킹 17위→13위
▲'작가 등용문' 신춘문예에도 등장한 AI…허용 범위는?